

하와이 연가

SONGS OF LOVE
FROM HAWAII

하와이 연가

SONGS OF LOVE
FROM
HAWAII



121년 전, 꿈을 찾아 떠난 그들에게
음악으로 바치는 헌사

| 감독 | 이진영

리처드 웅재 오닐

김지연

이그나스 장

케올라 비머

예수정

케리 박

| 제작 | 채하 | 나우 프로덕션 | 필름 | 해리 | CGV ICECON | 전체 관람가

2024. 10. 30.



Preface

머리말

미지의 섬에 도착한 조선인 102명...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121년 전 우리의 이야기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

이민 선조들의 지혜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미래를 비추는 일이라 믿는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리라 믿는다.
당신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깨끗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미래를 꿈꾼 위대한
선조의 후손이라고, 넓고도 깊은 사랑을 이렇게나 많이 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그러니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실망은 할지라도 끝내 좌절하지는 말라고,
토닥이고 일으켜 세워주리라 믿는다.
그렇게 언젠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 또한 그랬던 것처럼.

감독
이진영



Synopsis
시놉시스

음악 영화 <하와이 연가>는 1902년 한국 땅을 떠나 미지의 세상으로 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의 발자취’에서는 지난 121년 하와이 이민 역사를 이루는 주요 사건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난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노트’에서는 열일곱 나이에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간 ‘임옥순’의 비범한 삶과 그 여정을,
세 번째 이야기 ‘칼라우파파의 눈물’에서는 하와이의 ‘소록도’라 불리는 몰로카이섬 ‘칼라우파파’에 격리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김춘석’의 삶을 따라가본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각종 연기, 연극상을 휩쓴 바 있는 예수정 배우가 임옥순 역을 목소리 연기했고, 그래미 수상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세계적인 명성의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 이그나스 장, 그리고 슬랙 키 기타리스트 거장 케올라 비머가 깊은 감동의 선율을 선사한다.

“ 1902년 조선 땅을 떠난 사람들이 도착한 곳, 하와이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난 이들이 마주한 것은 척박한 환경
그럼에도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떠나온 고국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고자 하지 않았던
121년 전 우리들의 이야기가
광활한 하와이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



Review
선공개 리뷰



최태성 | 역사 커뮤니케이터

★★★★★

<하와이 연가>는 건조한 역사를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 철저한 고증과 실화에 기반한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게 한다.



차인표 | 배우, 작가

★★★★★

한 편의 시를 본 것 같기도
음악회에 다녀온 것 같기도 한
동화책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영화



Edward Shultz
| 역사학자, 하와이대학교 태평양 아시아학 명예 교수

★★★★★

영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마지막 크레딧까지
시선을 땔 수 없었다. 음악, 의미, 그리고 하와이를
수려하게 그려낸 명작



Chuck Parker | 미 공영방송 편성부 국장

★★★★★

음악과 사진, 나레이션을 자유자재로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수작의 탄생. 영화 속
연주만으로 이미 수많은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큰별쌤 추천! <하와이 연가>를 봐야 하는 이유 4가지

하나. 우리 모두가 역사에 빛을 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은 오로지 '나'로만 채워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만나면 우리 모두는 역사에 빛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신분제도 아닌, 식민지도 아닌, 절대 가난도 아닌 지금... 이 당연한 '지금'이 누군가의 삶을 건 간절한 꿈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영화는 자칫 역사에 무임승차하고 있을지도 모를 '나'에게 다정하게 가야 할 제대로 된 여정을 들려준다.

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족 간의 유대가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사랑'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투박하고 어찌 보면 뻔하고 당연해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결국 내 존재의 출발이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도착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다.

셋. 한국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민사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사 시험에 해외 독립운동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우리의 공식 이민이 시작된 곳이 제물포와 하와이라는 사실, '사진신부'와 같은 역사적 개념 등이 영화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넷.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리처드 용재 오닐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귀호강을 누리게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을 통해 잠시 삶의 미학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About the Film
상세정보

러닝 타임	62분
장르	장편 음악 영화
언어	영어, 한국어
촬영 장소	하와이 내 이민 역사 관련 주요 명소 오아후섬, 몰로카이섬 칼라우파파 반도

초청 및 상영

2023. 10	제43회 하와이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월드 프리미어 상영)
2024. 05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영화관 상영
2024. 09	미 공영방송 PBS 방영
2024. 09. 06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 (아시아 프리미어 상영)
2024. 10. 30	국내 전국 개봉

공식 홈페이지

www.theRainbowWords.com/ko



Logline
로그라인

“ 리처드 용재 오닐, 김지연, 케올라 비머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하와이에 모인 이유는?

121년 코리안 디아스포라 속 선조들의 사랑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야기한다. ”



First Story: Their Footprints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의 발자취



테마 | 121년 한인 이민 역사를 이룬 중대 사건 위주로 구성된 미니 다큐멘터리

연주 | Ignace Jang (이그나스 장,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연주곡 | 희망가, 상록수, 봄이 오면



이민사 속 빛나는 업적을 남긴 한국인 1~3세



아시아계 최초로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한 플로렌스 안, 1935년경
 한인 최초로 주 대법원장이 된 문대양, 1993년경
 한인 최초로 시장이 된 해리 김, 2000년
 한인 최초로 부지사가 된 실비아 장 룩, 2022년

⋮

“자녀를 위해 헌신한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 이 곡을 연주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뮤지션, 이그나스 장



이그나스 장(Ignace "Iggy" Jang)

-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 인디애나 음대 아티스트 학위 취득.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 프랑스 태생 미주 한인 2세

“혼자일 때 보다 함께일 때, 훨씬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프로젝트였어요. 하와이의 이민사, 나아가 전 세계 이민자의 이야기는 만국공통이라는 걸 배웠지요. 그건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어요.”

Second Story: My Halmeoni's Brass Bowl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놋그릇



테마

하와이에 간 사진신부 '임옥순'의 실화 스토리를 통해 이민 여성의 삶과 헌신을 감동적으로 조명

각본

게리 박(Gary Pak, 하와이 대학교 영문과 교수이자 작가, 임옥순의 친손자)

목소리 연기

예수정(배우)

연주

리처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i O'neil, 그래미상 수상 비올리스트)

연주곡

오빠생각, 어메이징 아리랑, 대니보이



'사진신부' 임옥순

19세기 후반,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업이 성행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미지의 땅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감행했다. 한국인 사탕수수 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신붓감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1910년부터 신랑 사진만 보고 이민을 결심한 '사진신부' 700여 명이 하와이로 향했다. 1912년, 열일곱 살 임옥순도 사진신부가 되었다.



“

모르는 남자하고 사진을 교환했어.
그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참이었지...

이제 난, 낯선 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하고 새 삶을 시작할 거야.

”

두 번째 이야기의 뮤지션, 리처드 용재 오닐



리처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

- 세계적인 한국인 연주자로 그래미상 수상
-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어머니와 아일랜드계 조부모 사이에서 자람
- 줄리어드대 졸업 후 2000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협연으로 데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기록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재는 우리 이전에 이곳에 살았던 분들이 이루어주신 삶이니까요. 게리 박 작가님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억함으로써 이야기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Third Story: For Our Cherished Ancestors

세 번째 이야기: 칼라우파파의 눈물



테마 | 하와이의 '소록도'라 불리는 곳에 격리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민선조에 바치는 진혼곡,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의 서사

연주 | 김지연(Chee-Yun바이올리니스트), 이그나스 장(Ignace Jang바이올리니스트), 케올라 비머(Keola Beamer 기타리스트)

연주곡 |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알로하 오에(Aloha Oe)



칼라우파파의 역사

1848년,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한센병(나병)이 발병했다. 병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다. 하와이 왕국은 환자들을 격리하기로 결정하고 강제 수용지로 칼라우파파 반도를 선택한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의해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땅이 비옥해 환자들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에 완벽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1866년 카메하메하왕이 격리법을 시행하면서 한센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칼라우파파 반도에 버려졌다. 그 어떤 편의 시설도, 돌봐줄 이도 없었다. 환자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리란 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환자들은 병들고 약해 그곳에서의 삶을 견뎌내지 못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 1873년, 벨기에 출신의 데미안 가톨릭 신부는 7백여 명의 환자가 칼라우파파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명의 동료와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 집과 교회, 각종 시설을 짓고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다. 덕분에 공동체의 생활은 점점 개선되었지만 데미안 신부는 결국 나병에 걸려 1889년 칼라우파파에서 사망했다. 그는 후에 바티칸 교황청에서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이후 치료법이 개발됨에 따라 1969년 칼라우파파로 격리 명령이 해제되었고, 오늘날 칼라우파파는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했던 이들의 역사를 보존하는 국립 역사 공원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뮤지션, 김지연 & 케올라 비머



김지연(Chee-Yun)

- 세계적인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 1984년 뉴욕필하모닉과 협연
- 1990년 한국인 최초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수상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죠.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케올라 비머(Keola Beamer)

- 하와이의 전설적인 슬랙키 기타리스트
- 하와이 카메하메하 왕족의 후손으로 하와이 문화, 예술계의 거장으로 평가됨

“알로하’의 정신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데 기여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해요. 선조들을 기리는 일, 그분들이 겪은 시련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Production Note: Behind the Scene Stories

제작 노트 : 영화 속 장면에서 숨겨진 비밀

해군 마라도함 위에서 촬영을?!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참가를 위해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의 엔딩 장면이 절로 그려졌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버리고 **102명의 우리 조상들이 건넌던 바로 그 바다를 우리 해군이 건너온다**니, 120년 역사를 통해 이룬 우리 선조들의 성취와 강해진 우리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이보다 좋은 그림을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방송국도 제작사도 아니고 일개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어떻게 촬영 허가를 받을지 난감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을 들은 하와이 총영사관의 오순근 무관은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죠!”라고 힘을 북돋워주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닫혀 있었던 그때, 우리 해군 함정 위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한인 이민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무관님과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미군에 촬영 허가를 받을 때까지 크고 작은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다.

호놀룰루 항에 울려 퍼진 상록수

故 김민기 선생님이 곡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선곡이다. 한국에서 개봉하게 되면 꼭 영화관의 가장 편한 자리에 모셔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개봉은 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 영화 속 ‘상록수’가 울려 퍼질 때마다 선생님의 안식을 기원해야지 다짐한다. 상영 초청은커녕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죄송함을 그렇게 달래곤 한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이민 선조가 보내준 무지개



촬영 당일 아침에 가까스로 허가증을 받아 들었다. 전 스태프가 아니라 촬영 필수 인력 다섯 명만 함정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하늘은 잔뜩 흐린 상태였지만 다른 날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찍어보자는 마음으로 다섯 명이 떨리는 마음으로 함정에 올랐다.

장비를 풀고 이그나스 장이 ‘상록수’ 연주를 시작할 때였다. 그야말로 거짓말같이 크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닌가.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스태프들조차 이렇게 **크고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을 정도다. 그렇게 영화의 하이라이트 컷이 탄생했다.

마치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그래 수고했어’ 말해주는 것 같다고 이예지 프로듀서는 말했다. ‘이민선조연합에서 보내주신 무지개 화환’을 받아 든 촬영팀은 새벽 여섯 시에 시작한 열두시간의 촬영 강행군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 1일 차를 마쳤다.

영화 속 ‘상록수’ 관련하여 김민기 선생님께서 저작권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기사가 얼마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개봉작 장편 <하와이 연가>가 아니라, 초기 단편 영화로 제작했던 당시 일부 행사에서 상영하는 것에 한한 것이고, 이번 개봉작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작 동의 및 저작인격권료에 대한 비용을 학전 측과 협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제작에 있어 따스한 지지와 용기를 주신故 김민기 선생님과 학전 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Archival Materials

121년 이민사를 한눈에 전하는 방대한 양의 역사 사진과 아카이브



15분 동안 121년 이민사를 전하기 위해서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진과 음악을 활용했다. 121년 이민사의 주요 사건을 갈무리하고 각 사건과 각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좋은 사진 자료는 이진영 감독이 일일이 자료더미를 뒤져서 찾은 것들이다. 하와이에 있는 각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 센터, 하와이 주립 기록원 같은 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찾고 인터뷰한 한인 후손의 가족 앨범을 함께 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곳은 하와이 주립 기록원(Hawai'i State Archives). 그곳에서 'Korean'으로 분류된 상자를 하나씩 열어 사진 자료를 찾아냈다. 이진영 감독은 첫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온 조선인 102명의 명단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120년의 시간차를 두고 가슴으로 교감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사진 자료를 통해 이민 첫해인 1903년부터 시작해 사진의 촬영 연도가 올라갈수록 이국 땅에 차츰 적응해나가는 선조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초기 사진은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몇 장뿐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어머니들은 고향 땅에서 가져온 한복을 하와이 날씨에 맞추어 반소매로 줄여 입는가 하면 타 민족 여성들과 함께 빨래터에 모여 빨래를 하는 사진에도 등장한다. 또한 한 명씩 식구가 늘어날 때마다 찍은 가족 사진은 그 자체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느껴진다.



초대형 크기의 대형 태극기. 저 태극기는 누가 만든 것일까?
이 사진을 촬영한 연도는 1915년.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조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외딴섬 하와이에 있던 여성들, 우리의 어머니들은 한복을 입고 태극기 행진을 하며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고국의 독립을 외쳤다.

<하와이 연가>는 단순히 영화가 아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아니라 영혼을 쓰다듬는다. 제작진은 한민족의 역사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고통을 깊이있게 담아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그리고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 음악과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우리에게 이 영화는 진정한 선물이다.



- 해리 김, 미주 최초 한국계 시장 역임

Cast & key Crew

주요 제작진

감독, 총괄 프로듀서 **이진영**

<하와이 연가>

(2024, 장편 음악영화) 각본, 제작, 연출

- 제43회 하와이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초청
- 미 공영방송 'PBS Hawai'i' 방영

<무지개 나라의 유산>

(2021, 6부작 다큐멘터리 연작) 각본, 제작, 연출

- 제41회 하와이국제영화제, 스톡홀름 시티 영화제 공식 초청 외 10여 개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 2024년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 국가기록물 등재



2003 - 이화여대 언론정보학/영상학과 졸업

2004 - 하와이 이주

2005-2020 하와이 지역 신문사, 방송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2012 - 1인 영화사 '나우 프로덕션 필름' 설립

2015 -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 수상

2021 - 리버티국제영화제, 타고르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 수상

제작 소감

5년 전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잘 다니던 방송국을 나와 1인 영화사를 차린 것이죠. 정식으로 영화를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겁없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선 대가는 호되었습니다.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화 제작이라는 목표로 같은 배에 오른 많은 이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일 겁니다. 배가 육지를 향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통솔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선장의 자질 부족으로 우리 배는 자주 항로를 이탈하고 비바람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 살면서 무슨 영화 제작이냐며, 누군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제작이 시작되고 나서는 끝없는 자기 의심과 비판 속에 괴롭고 외로웠던 밤은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럼에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민사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조금 느려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해 미주, 나아가 전 세계로 이어지는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고 카메라에 담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가슴 뜨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첫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 마지막 에피소드의 주인공, 데이지 양 작가는 1904년 제물포항을 떠나 일본 고베에서 이민선 SS China로 갈아타고 하와이에 온 조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 <금강산의 보라부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멀리 시집을 가는 딸에게 할아버지가 건네는 말입니다.

“고통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라면 네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라. 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낳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네 가슴속에 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니,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갖도록 해라.”

우리 선조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와이 연가> 제작과 개봉을 위해 같은 배에 올라탄 동료들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121년 전 선조들의 이야기가 세상과 만났을 때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을 믿었기에 동료들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를 배의 노를 끝까지 함께 저어주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하와이 연가>가 3년 반 만에 세상에 가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와이 연가>가 관객을 만납니다. 오래전 제물포항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임옥순 할머니와 김춘석 할아버지가 12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 후손들과 만납니다. 부디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예지 제작(공동 프로듀서)

SM엔터테인먼트 IP EXPANSION센터 이사 겸 SM C&C 콘텐츠 사업부문 부부장 . 감독의 대학 시절 절친으로 <하와이 연가>기획과 제작 전반에 참여했다. 이화여대 영상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KBS 2TV 제작 피디로서 <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예체능> <유희열의 스케치북> 을 기획, 연출했다.



Matt Yamashita 촬영

에미상을 수상한 감독으로 <하와이 연가> 중 <칼라우파파의 눈물> 의 촬영 총감독을 맡았다. 하와이 몰로카이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Chapman University에서 영화 제작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현지인의 시각으로 하와이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시고니 위버가 참여한 에미상 수상 시리즈 ‘The New Environmentalists’, PBS National과 Arte France 등 여러 국제 방송 프로덕션을 통해 사회 문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바 있다.



Pawel Nuckowski 촬영, 편집

폴란드 출신의 하와이 이민자인 파월은 <하와이 연가> 1, 2부의 촬영 및 편집을 맡았다. 넷플릭스 영화 ‘Kaniela’(2024)를 비롯해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출했다. 지난 20년 넘는 커리어 속에서 제작한 작품 중 스코틀랜드에 사는 폴란드 후손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물을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꼽는다.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유럽의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후 폴란드와 아일랜드 국영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만났다.



Gary Pak 각본

하와이 주립 대학교 영문학 명예 교수이자 작가, 감독. 보스턴 대학 학사, 하와이 주립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하와이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3세 작가로, 1900년대 초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조부모가 그의 작품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유년시절의 기억을 기반으로 집필한 <하와이 연가> 2편 ‘할머니의 낫그릇’에서 할머니 임옥순 여사의 삶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예수정 ‘임옥순’ 역 목소리 연기 / 각색

연극배우이자 영화배우로, 깊은 내면 연기로 수많은 영화와 연극, 드라마에서 열연했다.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 석사,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를 졸업했다. 2020년 제21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2018년 제2회 더 서울 어워즈 영화부문 여우조연상, 2017년 이해랑 연극상 등을 수상했다. <하와이 연가> 2편 ‘할머니의 낫그릇’ 임옥순으로 열연했으며, 각색에도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Michael Thomas Foumai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작곡가로, 뉴욕 타임스는 그의 음악을 일컬어 ‘생생하고 영화 같은 작품’이라고 평한 바 있다. 대중적인 곡부터 아방가르드한 곡까지, 고향인 하와이의 문화에 역점을 둔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하와이 연가> 3편 ‘칼라우파파의 눈물’ 편에서 아름다운 우리 가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과 드보르자크 심포니, 그리고 ‘알로하 오에’를 유려하게 편곡했다.

Actress Ye Su-Jeong's Comment
배우 예수정 참여 소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엄마 아빠는 일본 순사에게 총살당하고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 조금 자라 소녀가 되자 남의 집 식 모살이를 한다. 그러곤 조금 성장하자 사진결혼을 한다.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의 결혼 정책의 하나로 한국 처녀와 대면 없이 사진만 주고받고 하던 결혼 방식이다. 아직 소녀 티가 가지지 않은 17세 옥순은 인천항에서 하와이행 배를 탄다. 낯선 땅에서 펼쳐질 낯선 남자와의 삶, 그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그저 삶이라는 끈을 붙잡는다.

주어진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옥순의 모습에 가슴이 흔들린다.

삶을 이토록 소중히 여긴 적이 내게도 있었나?

거저 주어진 삶, 더하여 거저 얻어진 모든 행운 앞에서도 불평이 앞서진 않았었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나라, 그런 고국의 독립을 위해 땀에 젖 동전을 꼬박꼬박 모아 보낸다.

동전을 꼭 쥐었던 손으론 주린 배를 누르고 잡풀도, 개미도 먹어가며 살아낸다.
 후손 게리 박 작가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기억해 이 작품을 썼다.

우리에게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민.보.배(믿고 보는 배우)의 대명사로 꼽히는 예수정, 목소리만으로 <하와이 연가>에 영혼과 숨을 불어넣다.

<신과 함께: 죄와 벌> <도둑들> <부산행>까지 무려 3편의 천만 영화에 출연한 그녀는 간결한 애니메이션에 진솔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임옥순’의 심경을 담담히 표현한다. 예수정은 ‘임옥순’역할을 실감 나게 소화하기 위해, 대본 전체를 직접 필사하며 자연스럽게 각색 까지 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전해지는 ‘임옥순’의 온갖 감정, 사랑과 눈물은 한국어를 모르는 해외 관객들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다.

필모그래피

1979년 연극 <고독이란 이름의 여인>으로 데뷔한 이래, 최근 전석 매진을 달성했던 <고트>(2024)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극 무대에서 관객을 압도해왔다. 지적이고 깊은 내면 연기로 정평이 난 그녀는 김동훈연극상, 히서연극상,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동아연극상 여자연기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 연극계의 중견배우로서 활약하고 있다. 나아가 드라마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안정적으로 펼쳐내어 배우를 믿고 작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1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기상과 2022년 MBC 연기대상 여자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드라마

- 2024 KBS2 '개소리'
- 2023 tvN '마에스트라' SBS '악귀 디즈니+' '최악의 악'
- 2022 MBC '멧돼지사냥' JTBC '인사이드' TV조선 '마녀는 살아있다' NETFLIX '패블러스'
- 2021 KBS1 '태종 이방원' SBS '원더우먼' tvN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tvN '마인'
- 2020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MBC '더 게임:0시를 향하여' tvN '지리산' tvN '반의 반'
- 2019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OCN '모두의 거짓말' tvN '블랙독'

영화

- 2024 하와이 연가 - 내레이션**
- 2024 필사의 추격,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 2021 간호중, 2021 새해전야
- 2020 69세, 2020 어게인,
- 2019 82년생 김지영
- 2019 말모이
- 등 다수

Interview with the Director

이진영 감독 인터뷰

Q. <하와이 연가>는 어떤 영화이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성인이 될 때까지 역사를 인지하며 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십대 초반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하와이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 공식 이민자-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정든 고향과 사람들을 등질 수 있었을까. 하와이에 와서는 완전한 이민자로서 고국을 마음에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한순간도 고국을 잊은 적이 없었다. 한순간도 고국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료 속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놀라웠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에 온 초기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역사가 들어왔다. 그들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고 나 아닌 많은 이들도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랐다. 첫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에서는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그들 자손의 입을 빌려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하와이 연가>를 통해서선 선조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따뜻한 음악으로 다정하게 들려주고 싶었다.**

Q. <하와이 연가>의 독특한 형식과 구성을 선택한 의도는?

<하와이 연가>는 **세 편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진 유니버스 음악 영화**다. 장르 구분을 하자면,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영화도 아니다. 음악이 있지만 대사는 따로 처리했으니 뮤지컬 영화로 볼 수도 없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과 영화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평, IP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과 영화의 문법을 거슬렀다는 이야기를 고루 듣고 있다.

어릴 적부터 첼로를 했다. 첼리스트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음악의 힘, 특히 고전 음악의 깊이와 섬세함을 알게 되었고, 이민 역사의 다양한 면면을 담기 위해 음악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음악을 활용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다듬으며 참고한 건 다른 영화나 영상물이 아니라 오페라다.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 그리고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춘 종합 예술인 오페라를 스크린에 옮긴다는 생각으로 <하와이 연가>의 밑그림을 그렸다.

'라 트라비아타'나 '토스카'처럼 3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의 스토리 전개 방식**이 121년 이민사와도 가장 잘 맞아떨어졌다. 서곡(Overture) - 1막- 2막- 3막 중, 서곡 부분에서 하와이로 떠난 조선인 102명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1-3막에서는 연주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에도 유니버스 구성이 가장 적합했다.

Q. 영화 속 음악에 대한 호평이 많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하와이 연가>는 음악을 통한 스토리텔링이므로, 선곡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하와이 연가>에 패턴을 두었다.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5분 미만으로 먼저 전개되고, 뒤이어 연주가 붙는다.** 이 형식이 영화 전체에 반복된다. 스토리 파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 후에 이어지는 연주 동안은 관객이 앞서 스토리 부분에서 습득한 정보를 소화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사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를 바랐다. 그를 위해서는 스토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적합한 음악을 선정해야 했다.

'아름다움, 친숙함, 역사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선곡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진정성**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과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하와이 심포니 악장 이그나스 장, 하와이의 살아있는 전설로 일컬어지는 기타리스트 케올라 비머를 섭외했을 때 연출자로서 그들에게 부탁한 건 한 가지- **음악으로 헌사를 쓴다는 마음으로 연주해달라는 것**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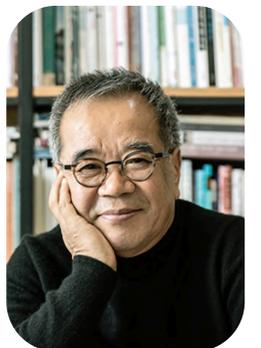
Q. 하와이 이민 한인 선조와 지금의 우리가 무슨 상관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위한 운영이 어려워지자,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독립 공채 25만 달러를 발행했다. 요즘 사고방식으로 보면 실체 없는 유령과도 같은 조직에서 발행한 한낱 종이 한장이자 깡통 채권이였다.

그 당시 외국인들 역시 같은 시선으로 독립 공채를 바라보았고, 외면했다. 그런데 그중 15만달러가 매입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매입한 이들은 바로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이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비용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자금까지, 노동의 대가로 번 월급의 일부를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자금 모금에 아낌없이 보탬**다. 이들에게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뒤에 오는 아이들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공간**이다.

인간은 얼마나 외로울 수 있을까
외로운 현실을 이진영만큼 순도 높게 이겨가고 있는
영화감독도 없을 것이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 속에 숨은
인간의 아픔이다 그리고 극복이다. 극복 그 이후다
영상 깊은 곳에 아픔을 치유해주는 외로움의 순도는 서늘하다

- 시인 김용택



Interview with Richard Yongjae O'neill

리처드 용재 오닐 인터뷰

Q. 리처드 용재 오닐의 이야기

저는 **한국 전쟁 고아였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복순이고, 저의 미국 가족인 오닐 가에 입양되었어요. 당시 많은 전쟁 고아들처럼 거리에서 떠돌다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다행히도 호프(Hope) 재단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죠. 이후 시애틀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자라셨고요. 어렸을 때는 한국이 미지의 나라처럼 느껴졌는데, **20대에 한국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며 그 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와 가족의 유산을 찾아가게** 된 거죠.

Q. 할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음악 선생님들을 제외하면 유년 시절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가족, 특히 **할머니**예요. 80대에도 저를 레슨에 데려다 주시는 등 힘이 되어주셨죠. 굉장히 강인한 분이셨고, 저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깊이 의지했어요. 할머니는 늘 직접 칭찬하시진 않았지만, 주변 분들에게는 ‘우리 손주가 천재야’라고 자랑하셨어요. 저를 믿으셨던 거죠.

차에 함께 앉아 있었던 순간들이 기억나요. 할머니는 큰 스테이션웨건을 몰고 정말 빠르게 운전 하셨죠. 저는 그저 ‘우리가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정말 매번 무사히 도착하셨죠. 차에서 함께한 시간이 정말 많았고, 할머니는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에 네가 제일 좋아.” 그래서 **저를 정말 아끼신다는 걸 느꼈죠.**

Q. 리처드 용재 오닐에게 음악이란?

언어는 복잡해요. 저는 항상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을 생각해요. 말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음악은 번역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요.** 해석에 규칙이 없고,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의 마법은 작곡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작을 잘 살리려고 노력해요. 가끔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 중 버르토크 벨러라는 헝가리 작곡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아는 초기 민속 음악 학자 중 한 명일 거예요. 1900년대 초에 활동하셨고, 제가 헝가리 타카치 콰르텟에 있는 것도 버르토크의 영향이 있죠. 그는 ‘민속 음악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정말 동의해요. 사람들의 음악은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요.

Q. <하와이 연가> 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조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머니 쪽 조부모님도 잘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은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지만, 과거의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그분들이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몫도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저는 특히 아버지와 만나지 못한 친척들을 떠올리곤 해요. 만약 그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다면, 이씨 가문, 그리고 예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와이 연가>를 세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영화는 **역사적 사료, 음악, 인터뷰, 애니메이션까지 동원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외칩니다.**

- 원용석(유튜브 ‘원용석의 진실정치’ 진행자, 전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타심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자신의 안위만 돌보려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 게리 박 작가 -

”

“

‘알로하’는 평화, 사랑, 용서를 의미합니다.

- 케올라 비머, <하와이 연가> 중에서-

”